

# 尹 “한·영 함께 인도·태평양 정치·경제 안보 튼튼히 할 것”

### 영국 의회 연설 “수교 140주년 양국 관계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 “정보 공유·사이버 안보 협력... 불법적 도발 세력 맞서 함께 싸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은 영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민 방문을 계기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영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불법적인 침략과 도발에 맞서 싸우며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며 공유,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치, 가상화폐 탈취, 기술 해킹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양국 공동 강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북한 핵 위협, 공급망 불안정, 이상 기후, 디지털 분야의 격차 등을 현 세계의 위기 요인으로 지적한 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은 도전과 응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고 발전한다’고 했다”며 “역동적인 창조를 역사를 써 내려온 한국과 영국이 긴밀히 연대해 세상의 많은 도전에 함께 응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분야 협력의 현황과 비전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금융, 유통, 서비스, 생명공학 등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2021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더욱 활성화됐다”며 “이번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EYD’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며 “양국의 협력 지평은 디지털·AI(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해양 분야 등으로 크게 확장돼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9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며 “한국 정부는 영국이 제안한 AI 안전네트워크 및 유엔의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AI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견인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설 전반부에서는 영국이 세계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력을 평가하며 양국 관계를 조망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에 서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이 주도한 산업혁명은 생산양식과 경제 패러다임의 혁신을 통해 종래 인류 역사에서 겪어보지 못한 초고속의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과 최초로 1883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고 말한 뒤 과거 한국에 도움을 준 인물들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1887년 신약성서를 한국어로 최초 번역한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 1904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한국의 독립에 앞장섰던 브리스틀 출신 에니스트 베델 기자, 1916년 세브란스 병원 수의학자로 한국에서 장학회를 설립했던 워릭셔 출신 프랜시스 스코필드 선교사 등이다.

윤 대통령은 “1950년에도 영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며 “공산 세력의 침공으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비랑 끝에 몰렸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명의 군대를 파병해 이 중 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먼 나라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수상은 ‘위대한 대가는 책임감’이라고 했다”며 “양국이 창조적 동반자로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때로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영국을 국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무명 용사의 묘를 참배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 후임 박성재 유력... 외교·국토 장관 다수 거론

다음달 초 예상 개각 후보 윤곽  
경제부총리 최상목 수석 유력  
대통령실 수석 일괄교체도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과 맞물려 연말에 단행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는 법무부·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최대 관심인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이 검토되고 있다.

박 전 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법무부 장관 교체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 시기와 역할에 따라 연말이 아닌 ‘윈포인트’ 개각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외교부 장관 후임을 물색하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동안 유임 가능성이 무거워 실렸던 박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에 총선 출마 의향을 밝혔다. 박 장관은 4선 의원으로 현 당 관계자가 전했다. 박 장관은 4선 의원으로 현재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후임에는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보수 성향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는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준국 주유엔대사,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 직업 외교관 기용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장관 교체가 확정될 경우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일부 언론이 사퇴설이나 교체설을 다시 떠 올린 규영 국정원장은 당분간 유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국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며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총선에 출마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동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선 출마로 균일 경우, 후임에는 김희정 전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 장관들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리를 지켜온 해양수산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개편 작업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수석비서관 인선은 일괄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고심 중인 이상훈 사회수석 후임은 현재 장상운 교육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의 2파전 양상이라고 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에는 황상우 전 앵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과학기술수석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강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국힘 “하위 20% 배제 넘어서는 엄격한 컷오프”

청년 가산점 연령대별로 부여키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보다 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청년 가산점은 연령대별로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2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배 부총장은 ‘총선 공천 컷오프’와 관련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할 것을 제안했는데 총선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을 마련해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 도덕성 평가 등 정량 평가를 최대한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공천심사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